

노년 여성의 신체만족도에 관한 연구  
-연령 및 비만도에 따른 신체만족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Body Cathexis of Elderly Women  
-Focused on Body Cathexis According to Age and Degree of Obesity-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배재대학교 의류학과, \*\*기술표준원  
박재경·이정임\*·남윤자·주소영\*\*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Division of Clothing and Textiles, Paichai University

\*\*Polymer and Textiles divisio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Jae-kyung Park · Jeong-yim Lee\* · Yun-ja Nam · So-young Joo\*\*

(2002. 3. 28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tudy the body cathexis according to the age and the degree of obesity of elderly women. The subjects were 342 elderly women aged 60 to 92. Body measurements and survey were taken from July to August, 2001. The results are follows;

- 1) The subjects showed a tendency to be satisfied with their bodies. But they were relatively unsatisfied with the girth of torso parts.
- 2) The body cathexis was more influenced by the perceived body size than the actual body size.
- 3)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age groups in the body cathexis. The 60~69 age group was more dissatisfied with their bodies than the other age groups.
- 4)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groups according to Röhler Index in the body cathexis. The normal group was more satisfied with their bodies than the lean and the obese groups.

**Key words:** body cathexis, age, degree of obesity, elderly women;  
신체만족도, 연령, 비만도, 노년 여성

I. 서론

과학과 의학의 발달은 인간의 수명 연장에 크게 기

여하여 노인 인구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인 사회를 '고령사회(aged society)' 라고 분류하는데, 한국은 1999년에 7.2%에서 2019년 14%로 증가가 예상되어 고령사회로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타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매우 빠른 속도를 나타내고 있다(동아일보, 2001). 인구고령화에 의한 노인의 양적 증가와 노인의 경제력 향상 감

※ 본 연구의 인체측정조사는 산업자업부 기술표준원 2001년 경상과제인 노년여성 체형 표준화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음

은 질적 증가는 노인계층에 대한 복지 수요증대와 실버산업 발달이라는 필연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데 (김광주·최정옥, 1999), 이를 위해서는 노년층의 다양한 특징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의생활과 관련된 측면에서 볼 때 노년층은 신체적 변화가 크고 사회, 심리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되어 다른 연령층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의류학에 있어서의 노년층 연구는 의복 원형구성과 관련된 신체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함옥상(1985)은 노년기의 특징인 背面 형태에 따라 체형 특성을 분류하였고, 김영숙(1994)은 상하반신의 형태적 특징에 의해 체형을 분류하고, 연령증가에 따라 키, 몸무게, 너비, 길이 항목은 감소하고, 허리둘레와 배둘레는 증가한다고 하였다. 김경화(1996)는 체형의 자세와 실루엣에 따라 체형을 분류하고, 노년 여성의 체형은 상체가 굽고, 허리, 배가 비만하며, 가슴, 어깨, 엉덩이가 쳐지고, 키, 길이, 너비항목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고 하였다.

노년층의 의복에 대한 사회, 심리적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유경숙(1984), 김진구 등(1995)은 연령증가와 함께 의복이나 패션에 대한 관심은 감소하나, 외모에 대한 만족도는 증가한다고 하였다. 반면 Callis(1982)는 노인들의 경제력 향상과 활발한 사회참여 등은 의복으로 상실된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보완하여 자아상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신체만족도가 높을수록 김진구 등(1996)은 기성복 맞춤새에 만족하며, 홍병숙(1996)은 의복관여가 높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신체만족도에 대해 실제체형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심리학적인 시각이 강하다.

실제 체형의 측정을 기반으로 신체 크기인식이나 신체만족도, 신체이상형 등과의 관련을 고찰하는 연구는 20대 젊은 여성층에 한정되고 있다. 정재은(1993)과 정재은 등(1999)은 실제 신체측정치보다 신체에 대한 크기인식이 신체만족도와 높은 관련성이 있으며, 마르고 긴 체형을 이상형으로 하며, 유행경향에 따라 이상체형이 변화해 신체만족도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남윤자 등(2001)은 20대 여성이 신체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고, 신체만족도에 있어 실제체형보다 인지체형이 더 높은 상관을 보인다고 하였다.

노년 여성은 체형적 변화가 큰 연령대이므로 측정자료를 통한 체형적 특징을 기반으로 신체만족도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년 여성의 신체 부위별 만족도를 알아보고 신체측정치 및 신체 크기인식과의 상관을 파악하여 자신의 신체에 대해 인식하는 경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연령과 비만도에 따른 신체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고, 이상치를 조사함으로써 노년 여성의 신체만족도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를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노년 여성의 신체 부위별 만족도를 신체측정치 및 신체 부위별 크기인식과의 상관성을 통해 고찰한다.

〈연구문제 2〉 노년 여성의 신체 부위별 만족도를 연령 및 비만도에 따라 규명한다.

〈연구문제 3〉 노년 여성의 신체 이상치를 고찰한다.

###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은 60~92세의 노인 여성으로서 자료는 2001년 7월부터 8월까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의 5개 도시와 경기일부지역에서 수집하였으며, 인체측정과 설문조사를 동시에 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연구대상이 노인임을 감안하여 보조자들이 질문하고 대답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총 324부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연령 분포는 〈표 1〉과 같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신체측정치는 〈표 2〉와 같다.

### 3. 측정방법

#### 1) 인체측정

측정항목은 〈표 2〉에 나타난 16항목과 다리길이 산출을 위한 엉덩뼈가시점높이, 무릎높이 2항목을 포함하여 총 18항목이었으며 분석에 사용된 항목은 위의 16항목과 다리길이, Röhler Index의 18항목이다. 측정항목은 체형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신체 크기

인식, 신체만족도 조사 부위와 대응되도록 설정하였다. 측정방법은 R. Martin의 인체측정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측정항목의 선정은 KSA 7003을, 측정방법은 KSA 7004를 기준으로 하였다.

## 2) 설문조사

설문조사 항목은 부위별 신체만족도와 크기인식, 이상치(理想值)의 3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신체에 대한 부위별 신체만족도와 크기인식의 측정 은 정재은(1993)의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각 23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모두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만족도는 만족함을, 크기인식은 크거나 굵게 인식함을 의미한다.

이상치는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키, 몸무게의 5항목에 대하여 직접 기록하도록 하였으나, 치수에 대한 개념이 없어 무응답치가 50% 이상인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는 제외하고 키, 몸무게 2항목만 분석에 사용하였다.

## 4. 용어의 정의

### 1) 연령대의 분류

노인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남윤자 등(1996)과 현두일(1981)은 60~64세, 65~69세, 70~74세, 75세 이상의 4단계로 연령대를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1999년을 기준으로 한 한국 여성의 평균 수명은 79.2세로서 고령자의 수가 많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동아일보,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60대(60~69세), 70대(70~79세), 80대(80세 이상)의 3단계로 연령대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2) 비만도의 분류

본 연구에서는 신체의 비만도를 나타내는 Röhler 지수를 기준으로 수척, 정상, 비만의 3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일반적으로 Röhler 지수가 1.2미만이면 수척, 1.2~1.5는 정상, 1.5이상인 비만으로 분류되나 연구자에 따라 차이를 나타낸다. Röhler 지수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김순자(1996)는 중년 여성을, 남윤

자 등(1996)은 노년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Röhler 지수 1.7이상을 비만, 1.2미만을 수척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Röhler 지수의 평균이  $1.607 \pm 0.214$ 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집단을 분류하면, 수척집단은 9명(2.8%), 정상집단은 88명(29.9%), 비만집단은 227명(70.1%)으로 대부분이 비만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연구대상이 노년층임을 고려하여 1.7이상을 비만, 1.2~1.7을 정상, 1.2 미만을 수척

〈표 1〉 연구대상의 연령 및 비만도 분포

분류기준		인원수(명)	백분율(%)
연령	60대(60~69세)	133	41.0
	70대(70~79세)	150	46.3
	80대(80세 이상)	41	12.7
비만도	수척	9	2.8
	정상	214	66.0
	비만	101	31.2
합계		324	100.0

〈표 2〉 신체측정치와 평균과 표준편차

(단위: cm)

측정항목	평균	표준편차
가슴둘레	93.51	7.07
허리둘레	82.42	7.57
엉덩이둘레	92.02	6.05
윗팔둘레	28.78	2.65
아래팔둘레	23.13	1.75
손목둘레	16.41	1.58
넓적다리둘레	51.41	4.00
장딴지둘레	32.28	2.65
발목최소둘레	20.50	1.54
어깨접너비	33.47	1.65
뒤허리높이	92.41	3.99
엉덩이길이	20.69	2.40
소매길이	52.50	2.13
다리길이	76.28	3.29
어깨경사각	22.24	3.99
키	149.70	4.92
몸무게	53.87	7.57
Röhler Index	1.607	0.214

\* 다리길이=(엉덩뼈가시점높이-무릎높이)×0.93 + 무릎높이

집단으로 분류하였으며 비만도 분포는 <표 1>과 같다.

### 5.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자료는 SPSS/WIN 1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신체측정치, 신체만족도, 신체 크기인식 등에 대하여 기초통계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노년 여성의 일반적인 체형 특징과 신체만족도를 고찰하였다. 또한 신체만족도와 신체측정치는 연령별로 분산분석과 Duncan-test를 실시하였다. 비만도별로는 수척집단의 수가 정상, 비만집단에 비해 너무 작아 수척집단을 제외한 두 집단간에 t-test를 실시하였다. 이상치수는 paired t-test를 실시하여 실제 측정치와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연령 및 비만도별 이상치수의 차이도 분산분석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 III. 연구결과 및 고찰

### 1. 노년 여성의 신체만족도

#### 1) 신체부위별 크기인식과 신체만족도

신체 각 부위별 크기에 대한 인식정도와 만족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과 같다. 신체 각 부위에 대한 인식의 평균은 2.56~3.28의 범위에 분포되어 있어 노년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보통 또는 약간 작거나 가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허리굵기(3.28)가 가장 굵게 인식하는 부위이며, 이를 포함한 가슴크기, 엉덩이크기의 몸통 둘레 항목과 몸무게, 상반신비만도, 전신비만도의 비만 관련 항목, 그리고 얼굴크기만 3점을 넘는 점수를 나타내 다른 부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몸통과 비만도에 대해 굵고, 뚱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높이, 길이 항목에 대해서는 약간 작고 짧게 인식하였으며 키(2.56)는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항목이었다.

신체 각 부위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은 3.19~3.96의 범위에 분포되어 있어 노년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보통 또는 약간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키에서 3.19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몸무게(3.30)와 허리굵기(3.33), 상반신비만도(3.46), 다리길이(3.46)가 다른 부위에 비해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부

<표 3> 신체부위별 크기인식과 만족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신체부위	인식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목굵기	2.99	0.72	3.83	1.19
가슴크기	3.14	0.88	3.79	1.30
허리굵기	3.28	1.00	3.33	1.48
엉덩이크기	3.22	1.00	3.58	1.37
윗팔굵기	2.98	0.97	3.64	1.34
아래팔굵기	2.87	0.90	3.70	1.30
손목굵기	2.82	0.97	3.73	1.29
넓적다리굵기	2.95	1.02	3.65	1.37
장딴지굵기	2.80	1.01	3.63	1.35
발목굵기	2.72	0.93	3.70	1.33
얼굴크기	3.14	1.00	3.51	1.35
어깨너비	2.90	0.98	3.82	1.25
목길이	2.75	0.98	3.54	1.38
허리높이	2.94	0.71	3.79	1.23
엉덩이위치	2.87	0.59	3.88	1.20
팔길이	2.90	1.06	3.77	1.32
다리길이	2.80	1.08	3.46	1.50
어깨각도	2.82	0.56	3.96	1.15
키	2.56	1.13	3.19	1.56
몸무게	3.16	0.96	3.30	1.48
상반신비만도	3.11	0.93	3.46	1.40
하반신비만도	2.95	0.92	3.58	1.32
전신비만도	3.10	0.95	3.50	1.37

위별 신체만족도는 몸통부위의 굵기나 비만도, 키에 대해 다른 부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갖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노년 여성 신체만족도에 대한 결과는 20대 여성의 결과(정재은, 1993; 정재은·남윤자, 1999; 남윤자·이승희, 2001)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 20대 여성은 신체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고 특히 하반신 부위에 불만족한데 반해, 노년 여성은 자신의 신체에 보통 또는 약간 만족하는 경향을 보이며 사지보다는 몸통부위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 2) 신체부위별 크기인식 및 실제측정치와 신체만족도와와의 관계

신체부위별 크기인식과 신체만족도간의 관계를 고

찰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신체 둘레항목과 비만 관련항목 중에서 허리굵기, 엉덩이크기의 몸통의 둘레항목과 몸무게, 전신비만도에서만 0.2이상의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항목들은 모두 부적상관을 가져 가늘거나 마를수록 만족하는 경향이 있으며 허리굵기(-0.386)에서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신체 길이항목 중에서는 목길이, 팔길이, 다리길이, 키와 어깨각도에서 0.2이상의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항목들은 모두 정적상관을 가져 길이, 키 항목은 길고 클수록, 어깨각도는 어깨가 솟을수록 만족하

는 경향이 있으며, 다리길이(0.511), 키(0.488) 등의 길이 항목은 둘레항목에 비해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신체만족도 조사항목과 대응되는 실제측정치 18항목에 대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실제측정치와 만족도간의 상관계수는 <표 4>와 같다.

실제측정치와 만족도간의 상관계수는 대체로 낮았다. 0.2이상의 상관계수를 나타낸 항목은 둘레와 비만 관련 항목에서는 전신비만도(-0.227), 엉덩이크기(-0.221), 허리굵기(-0.204)였고, 길이항목에서는 키(0.416), 다리길이(0.338), 팔길이(0.277)였다. 크기인식과 신체만족도와와의 상관관계와 마찬가지로 둘레와 비만 관련항목에서는 부적상관을, 길이항목에서는 정적상관을 보였으나, 신체측정치와 만족도간의 상관계수는 크기인식과의 상관계수보다 낮고, 0.2이상의 상관계수를 나타낸 항목의 수도 적었다.

이상의 비교적 상관계수가 큰 허리굵기, 엉덩이크기, 목길이, 팔길이, 다리길이, 어깨각도, 키, 몸무게, 전신비만도 항목 중 키(3.19), 몸무게(0.30), 허리굵기(3.33), 다리길이(3.46), 전신비만도(3.50) 등의 5개 항목은 신체만족도 점수가 3.5 이하로 다른 항목보다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노년 여성들이 신체의 다양한 부분에 대해 크거나 만족도를 인식하지 않으며, 위에서 언급된 신체항목 정도에서만 관심을 갖고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신체만족도는 실제 신체측정치보다 자신이 인식하는 크기에 더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표 4> 신체부위별 크기인식 및 실제측정치와 만족도의 상관관계

신체부위	상관계수		대응 측정항목
	크기인식과 만족도	실제측정치와 만족도	
목굵기	-0.077		-
가슴크기	-0.129*	-0.030	가슴둘레
허리굵기	-0.386***	-0.204***	허리둘레
엉덩이크기	-0.271***	-0.221***	엉덩이둘레
윗팔굵기	-0.132*	-0.048	윗팔둘레
아래팔굵기	-0.015	0.040	아래팔둘레
손목굵기	-0.056	0.022	손목둘레
넓적다리굵기	-0.041	-0.079	넓적다리둘레
장딴지굵기	0.081	0.031	장딴지둘레
발목굵기	0.115*	0.050	발목최소둘레
얼굴크기	-0.196***		-
어깨너비	-0.054	-0.035	어깨접너비
목길이	0.443***		-
허리높이	0.126*	0.199***	뒤허리높이
엉덩이위치	0.107	-0.060	엉덩이길이
팔길이	0.337***	0.277***	소매길이
다리길이	0.511***	0.338***	다리길이
어깨각도	0.235***	-0.037	어깨경사각
키	0.488***	0.416***	키
몸무게	-0.232***	-0.181**	몸무게
상반신비만도	-0.198***		-
하반신비만도	-0.120*		-
전신비만도	-0.230***	-0.227***	Röhrer Index

\*p≤0.05, \*\*p≤0.01, \*\*\*p≤0.001

## 2. 연령별 신체만족도의 비교

### 1) 연령별 체형의 특징

노년기 여성의 연령별 신체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18 항목의 신체측정치에 대하여 분산분석 및 Duncan-test를 실행하였으며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은 <표 5>와 같다.

유의차가 나타난 모든 항목에서 60대와 70대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이들에 비해 80대는 유의하게 작은 측정치를 나타내었다. 80대는 키와 몸무게가 감소하고, 사지의 둘레항목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Röhrer 지수와 몸통의 둘레항목에서는 연령별 유의차가 없었다. 따라서 80대는 60, 70대에 비

〈표 5〉 연령별 신체측정치에 대한 평균과 분산분석 결과

연령대	60대	70대	80대	F값
항목				
윗팔둘레	29.42(A)	28.60(A)	27.46(B)	9.552***
아래팔둘레	23.64(A)	22.96(A)	22.07(B)	15.157***
넓적다리둘레	52.31(A)	51.33(A)	48.91(B)	11.939***
장딴지둘레	32.84(A)	32.16(A)	30.93(B)	8.877***
어깨너비	33.79(A)	33.39(A)	32.72(B)	7.245**
뒤허리높이	92.97(A)	92.31(A)	90.96(B)	4.103*
엉덩이길이	21.08(A)	20.61(A)	19.69(B)	5.565**
키	150.65(A)	149.56(A)	147.08(B)	8.742***
몸무게	54.87(A)	54.08(A)	49.85(B)	7.242**

던컨테스트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집단들 간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기 (A>B)

\*p≤0.05, \*\*p≤0.01, \*\*\*p≤0.001

해 키가 작으면서 사지에 비해 몸통이 굵어지는 체형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2) 연령별 신체만족도

연령별 신체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23항목에 대하여 분산분석 및 Duncan-test를 실행하였으며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은 〈표 6〉과 같다.

전체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체만족도가 증가하고 있다. 60대 집단의 신체만족도는 2.94~3.78의 분포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았으며 키(2.94)와 허리굵기(3.00)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70대 집단은 3.19~4.01의 분포를 갖으며 키(3.19)와 몸무게(3.43)의 점수가 낮았다. 80대 집단은 3.68~4.34의 분포로 대부분의 항목에서 4점을 넘어 신체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체나 외모에 대한 관심이 낮기 때문으로 추측되며, 허리굵기(3.68)와 몸무게(3.71)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부위별 신체만족도에 대해 신체측정치와 관련하여 고찰하면 연령별 신체측정치에서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은 허리굵기, 엉덩이크기, 발목굵기, 전신비만도에서 60대가 70대, 80대와 유의하게 만족도가 낮았다. 또한 60대와 70대의 측정치에서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은 윗팔굵기, 넓적다리굵기, 장딴지굵기, 몸무게에서도 60대가 70대보다 만족도가 낮았다. 클수록 만족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키에서도 측정치에서는 큰 값을 나

〈표 6〉 연령별 신체만족도에 대한 평균과 분산분석 결과

연령대	60대	70대	80대	F값
항목				
허리굵기	3.00(B)	3.51(A)	3.68(A)	4.705**
엉덩이크기	3.29(B)	3.72(AB)	4.00(A)	4.590**
윗팔굵기	3.45(B)	3.71(AB)	4.03(A)	5.554*
넓적다리굵기	3.38(B)	3.76(AB)	4.12(A)	5.377**
장딴지굵기	3.29(B)	3.80(A)	4.10(A)	8.004***
발목굵기	3.39(B)	3.85(A)	4.15(A)	6.810**
얼굴크기	3.27(B)	3.58(B)	4.02(A)	5.477**
어깨너비	3.59(B)	3.91(AB)	4.24(A)	5.017**
어깨각도	3.78(B)	4.01(AB)	4.34(A)	3.886*
키	2.94(B)	3.19(B)	3.98(A)	7.094**
몸무게	3.02(B)	3.43(AB)	3.71(A)	4.269*
상반신비만도	3.27(B)	3.48(B)	4.02(A)	4.705**
하반신비만도	3.39(B)	3.61(B)	4.02(A)	3.550*
전신비만도	3.26(B)	3.58(AB)	3.98(A)	4.590**

던컨테스트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집단들 간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기 (A>B)

\*p≤0.05, \*\*p≤0.01, \*\*\*p≤0.001

타낸 60대와 70대의 만족도가 오히려 낮았다. 따라서 유사한 체형을 가지고 있어도 60대 여성이 70, 80대에 비해 신체에 대한 불만족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연령별 신체만족도에서 유의차가 나타난 항목에 대하여 신체 크기인식 및 측정치와 신체만족도간의 상관관계를 고찰하였으며 결과는 〈표 7〉과 같다.

60대의 상관계수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체만족도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항목이 감소하였다. 60대에서는 허리굵기, 엉덩이크기, 윗팔굵기, 얼굴크기, 어깨각도, 키, 몸무게, 상반신비만도, 전신비만도 등 다양한 항목에서 높은 상관을 나타내어 60대 노년 여성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신체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또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신체만족도와 실제 측정치의 상관보다 신체만족도와 크기인식 간상관이 크게 나타났다.

3. 비만도별 신체만족도의 비교

1) 비만도별 체형의 특징

노년기 여성의 비만도별 신체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18항목의 신체측정치에 대해 평균을 구하고 정상집단

〈표 7〉 연령별 크기인식 및 실제측정치와 만족도의 상관관계

연령대	60대		70대		80대	
	인식과의 상관계수	측정치와의 상관계수	인식과의 상관계수	측정치와의 상관계수	인식과의 상관계수	측정치와의 상관계수
허리굽기	-0.465**	-0.307**	-0.268**	-0.118	-0.376*	-0.194
엉덩이크기	-0.345***	-0.291**	-0.231**	-0.129	-0.063	-0.308
윗팔굽기	-0.260**	-0.058	0.030	0.056	-0.155	-0.111
넓적다리굽기	-0.069	-0.114	-0.031	0.039	0.120	-0.034
장딴지굽기	0.073	0.057	0.067	0.107	0.148	0.079
발목굽기	0.196*	0.074	0.015	0.073	-0.027	0.015
얼굴크기	-0.262**	-	-0.172*	-	-0.109	-
어깨너비	-0.044	0.160	-0.034	-0.150	-0.115	-0.058
어깨각도	0.310***	0.060	0.220**	-0.154	0.140	0.067
키	0.528***	0.558**	0.470***	0.463**	0.361*	0.290
몸무게	-0.275**	-0.192*	-0.201*	-0.188*	-0.043	0.059
상반신비만도	-0.295**	-	-0.051	-	-0.025	-
하반신비만도	-0.174*	-	-0.044	-	-0.134	-
전신비만도	-0.309***	-0.262**	-0.111	-0.209*	-0.188	-0.163

\*p≤0.05, \*\*p≤0.01, \*\*\*p≤0.001

〈표 8〉 비만도별 신체측정치에 대한 평균과 정상/비만 집단간 t-test 결과

항목	비만도	수척	정상	비만	정상/비만 집단간 t값
가슴둘레	78.04	91.37	99.48	-12.469***	
허리둘레	67.92	79.93	89.14	-13.260***	
엉덩이둘레	81.83	90.19	96.86	-10.368***	
윗팔둘레	22.69	28.16	30.67	-9.540***	
아래팔둘레	19.97	22.72	24.28	-8.576***	
손목둘레	15.41	16.17	17.00	-4.439***	
넓적다리둘레	44.67	50.40	54.17	-9.142***	
장딴지둘레	28.07	31.80	33.72	-6.607***	
발목최소둘레	18.52	20.29	21.13	-4.939***	
뒤허리높이	93.16	92.95	91.19	3.692***	
다리길이	78.08	76.80	75.00	4.618***	
키	151.20	150.51	147.79	4.723***	
몸무게	38.22	51.81	59.69	-10.572***	
Röhrer Index	1.101	1.515	1.848	-21.964***	

\*p≤0.05, \*\*p≤0.01, \*\*\*p≤0.001

과 비만집단 간 t-test를 실행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은 〈표 8〉과 같다.

t-test 결과 정상집단에 비해 비만집단이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윗팔둘레, 아래팔둘레, 손목둘

레, 넓적다리둘레, 장딴지둘레, 발목최소둘레 등 대부분의 둘레항목에서 큰 값을 나타내었으며, 키, 뒤허리높이, 다리길이 등의 높이, 길이항목에서 작았다. 수척 집단의 평균을 함께 살펴보면, 비만집단일수록 둘레항목은 증가하고, 높이, 길이항목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 2) 비만도별 신체만족도

비만도별 신체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23항목에 대하여 평균을 구하고 정상집단과 비만집단 간 t-test를 실행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은 〈표 9〉와 같다.

비만도별 신체만족도의 평균을 살펴보면 허리높이와 다리길이, 키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정상집단이 가장 높았다. 목길이, 목굽기, 가슴크기, 허리굽기, 엉덩이크기, 윗팔굽기, 몸무게 등의 7개 항목에서는 수척 집단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허리높이, 다리길이, 키의 높이, 길이항목과 상반신비만도, 하반신비만도, 전신비만도의 비만 관련항목에서는 비만집단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그러나 수척집단과 비만집단의 신체만족도의 평균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9〉 비만도별 신체만족도에 대한 평균과 정상/비만 집단간 t-test 결과

항목	비만도	수척	정상	비만	정상/비만 집단간 t값
목굵기		2.89	3.94	3.65	2.131*
가슴크기		2.67	3.95	3.55	2.467*
허리굵기		2.67	3.67	2.69	5.711***
엉덩이크기		3.22	3.77	3.24	3.010**
윗팔굵기		2.56	3.79	3.39	2.466*
목길이		3.22	3.68	3.28	2.405*
허리높이		4.11	3.90	3.52	2.525*
다리길이		4.44	3.63	3.03	3.295**
키		4.33	3.30	2.86	2.345*
몸무게		2.67	3.62	2.69	5.357***
상반신비만도		3.11	3.80	2.78	6.297***
하반신비만도		3.22	3.82	3.09	4.692***
전신비만도		3.00	3.81	2.90	5.731***

\*p<0.05, \*\*p<0.01, \*\*\*p<0.001

정상집단과 비만집단 간의 t-test 결과는 모든 항목에서 정상집단의 신체만족도가 비만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수척집단의 경우 높이, 길이항목을 제외하고는 비만집단과 신체만족도의 평균이 유사하기 때문에 둘째항목이나 비만 관련항목에서는 마른 체형과 비만 체형이 모두 만족도가 낮고, 정상 체형의 신체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목이나 몸통의 둘째항목에서는 마른체형의 만족도가 비만체형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나 젊은 여성들이 길고 마른 체형을 선호하는

데 비해 노년 여성들은 지나치게 마른 것도 비만 체형과 마찬가지로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체부위별 만족도와 크기인식과의 상관에서 둘째항목의 상관이 길이항목에 비해 낮은 것도 가늘거나 굵은 것에 모두 불만족하는 경향 때문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수척집단의 경우 대상자의 수가 적어 다른 집단과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검증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해석에 제한점이 있음을 밝혀둔다.

또한 신체측정치 중 대부분의 둘째항목에서 비만집단이 정상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컸음에도 불구하고 만족도에서는 아래팔굵기, 손목굵기, 넓적다리굵기, 장딴지굵기, 발목굵기 등에서 정상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사지 부위의 비만에 대해 관대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앞의 노년 여성 전체에 대한 신체만족도에서 사지보다 몸통 부위의 신체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 4. 신체 이상치(理想值)의 고찰

노년 여성의 키와 몸무게에 대한 실제 측정치와 이상치를 비교하기 위하여 paired t-test를 실행하였으며 결과는 〈표 10〉과 같다. 키에 대한 이상치의 평균은 실제 측정치의 평균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크게 나타나 노년 여성들이 큰 키를 이상형으로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년 여성의 키에 대한 이상치는 157.11±5.33cm로 정재은 등(1999)의 연구에 나타난 20

〈표 10〉 신체부위별 실제측정치와 이상치의 평균 및 paired t-test 결과

신체부위	응답수	이상치대응 측정치의 평균	이상치의 평균	t값	비교 (전체 측정치의 평균(n=324))
키(cm)	204	149.77	157.11	16.915***	149.69
몸무게(kg)	230	54.11	53.87	0.743	53.87

\*p<0.05, \*\*p<0.01, \*\*\*p<0.001

〈표 11〉 연령별 이상치에 대한 평균과 분산분석 결과

항목	60대(n=98)		70대(n=105)		80대(n=26)		F값
	이상치 평균	측정치 평균	이상치 평균	측정치 평균	이상치 평균	측정치 평균	
키(cm)	158.84(A)	150.65	156.59(B)	149.56	152.10(C)	147.08	16.689***
몸무게(kg)	54.74(A)	54.87	53.69(A)	54.08	51.31(B)	49.85	3.791*

던컨테스트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집단들 간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기 (A>B)>C)

\*p<0.05, \*\*p<0.01, \*\*\*p<0.001



〈표 11〉 비만도별 이상치에 대한 평균과 정상/비만집단간 t-test 결과

항목	비만도		정상(n=147)		비만(n=76)		정상/비만 집단간 t값
	수척(n=5)	수척(n=5)	이상치 평균	측정치 평균	이상치 평균	측정치 평균	
키(cm)	156.75	151.20	157.16	150.51	157.06	147.79	0.119
몸무게(kg)	44.40	38.22	52.74	51.81	56.71	59.69	-5.277***

\*p≤0.05, \*\*p≤0.01, \*\*\*p≤0.001

대 여대생들의 키에 대한 이상치인  $166.46 \pm 2.93\text{cm}$ 와 큰 차이를 보였다. 몸무게에서는 이상치와 측정치 사이에 유의차가 인지되지 않았으며 노년 여성의 이상치  $53.87 \pm 5.79\text{kg}$ 은 20대의  $49.16 \pm 3.09\text{kg}$ 과 차이를 보였다. 이상치의 키와 몸무게로 산출한 Röhler 지수를 살펴보면 노년층이 1.389로 정상체형을 선호하나 20대는 1.066으로 마른 체형을 선호함을 알 수 있다.

연령별 이상치를 파악하기 위해 분산분석 및 Duncan-test를 실행하였으며 연령별 이상치의 결과는 〈표 11〉과 같다. 연령별로 키의 이상치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세 집단 모두 이상치가 실제 측정치보다 큰 값을 나타내 키가 크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몸무게도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실제 측정치와 비교할 때 60대와 70대는 약간 가벼워지기를 원하는 반면 80대는 오히려 무거워지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도별 이상치는 정상집단과 비만집단 간에 t-test를 실행하였으며 비만도별 이상치의 결과는 〈표 12〉와 같다. 정상집단과 비만집단 간에 키의 이상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몸무게는 비만집단의 이상치가 정상집단보다 유의하게 컸다. 실제 측정치와 비교하면 비만집단에서는 가벼워지길 원하는 데 반해 정상집단은 두 값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수척집단의 경우는 측정치의 평균보다 이상치의 평균이 큰 값을 나타내 무거워지기를 원하였다.

이는 20대 여대생 대부분이 몸무게가 가벼워지기를 원하는 이상치 경향(정재은·남윤자, 1999)을 갖는 것과 달리 노년 여성은 자신의 몸무게에 대해 인지하는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방향의 이상치를 갖는다. 이러한 이유로 노년 여성 전체에 대한 몸무게의 paired t-test에서 유의차가 인지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비만 관련 항목에서 정상집단의 신체만족도가 가장 높고,

마르거나 뚱뚱한 것에 모두 불만족을 나타내는 것도 이러한 경향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인체측정과 설문조사를 통하여 노년 여성의 신체 부위별 만족도를 알아보고 신체측정치 및 신체 크기인식과의 상관을 파악하였다. 또한 연령과 비만도에 따른 신체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고, 이상치를 조사함으로써 노년 여성의 신체만족도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01년 7월부터 8월까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의 5개 도시와 경기일부지역에서 수집한 60~92세의 노인 여성 324명의 측정자료 및 설문지 자료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노년 여성들은 대부분의 신체부위에 대해 보통이거나 약간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사지부위보다는 몸통부위의 둘레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2) 신체만족도와 부위별 크기인식이나 실제측정치와의 상관에서 상관도가 높게 나타난 항목은 키, 몸무게, 전신비만도, 허리굵기, 엉덩이크기, 팔길이, 다리길이 정도로 적어, 노년 여성들의 신체에 대한 관심이 다양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체만족도는 실제측정치보다 주관적 크기인식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3) 연령별 신체만족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졌다. 연령별 체형특성은 80대가 60, 70대 보다 키가 작고 사지에 비해 몸통이 굵어지는 체형을 나타내었고, 60, 70대에서는 체형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60대 노년 여성들의 만족도가 낮았다.

또한 연령별 신체만족도와 크기인식 및 실제측정치의 상관에서 60대 집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다양한

항목에서 높은 상관을 보여 60대의 신체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다.

4) 비만도별 신체만족도는 키와 허리높이, 다리길이의 높이, 길이항목을 제외하고는 정상집단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몸통의 둘레항목이나 비만 관련항목에서는 마른체형과 비만체형이 모두 불만족하였다. 즉 노년 여성들은 뚱뚱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마른 것을 선호하지 않았다.

5) 키에 대한 이상치는 전체가 크기를 원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몸무게는 수척집단은 무거워지기를, 비만집단은 가벼워지기를 원하는 등 다른 경향을 갖는다. 이는 비만도별 만족도에서 정상집단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과 일치되는 결과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노년 여성들은 현재 자신의 신체에 대해 보통정도의 만족도를 갖으며, 다른 부위에 비해 키와 몸무게, 허리굵기, 전신비만도에 상대적으로 불만족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연령별 신체만족도는 남윤자·유희숙(1996)의 연구에서 유의차가 인지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연령별 유의차가 인지되었으며, 특히 60대 여성들의 신체에 대한 관심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아 60대는 중년과 노년의 과도적 시기로 변화해 가고 있는 듯 하다. 최근 노후 소득을 확보한 노년층이 증가함(조사연구부, 2001)에 따라 소비자로서의 노년층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패션분야에서도 60대 여성들에 대해 다양한 시각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본 연구는 노년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Röhler 지수 1.7 이상을 비만집단으로 분류하였으므로 타 연구들과의 비교에 제한점이 있음을 밝혀둔다.

## 참 고 문 헌

- 김경화(1996), 노년기 여성 체형의 자세 및 실루엣, 대한가정학회지, 34(2), 183-199.
- 김광주·최정옥(1999), 실버산업의 실태분석과 발전방안, 産經研究, 6(1), 229-248.
- 김순자(1996), 우리나라 중년여성의 측면체형 분류, 한국의류학회, 20(2), 373-389.
- 김영숙(1994), 노년기 여성의 의복구성을 위한 체형 유형화,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진구·이유경(1995), 노년기 여성의 의복행동 연구, 복식문화연구, 3(2), 347-370.
- 김진구의 3인(1996), 노년기 여성의 생활만족도 및 외모만족도에 따른 의복만족도와 의복디자인 선호도에 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4(1), 57-74.
- 남윤자·유희숙(1996), 노인계층의 의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I) -노년여성의 연령 및 체형별 신체만족도와 기성복 사이즈만족도-, 한국의류학회지, 20(6), 962-974.
- 남윤자·이승희(2001), 한미 여대생의 실제체형과 인지체형의 만족도에 관한 비교, 한국의류학회지, 25(4), 764-772.
- 동아일보(2001, 11. 23.), 장래인구 추계 결과 주요 내용, <http://www.donga.com>
- 박재경·남윤자(1999), 신체 부위별 크기인식과 착의행동과의 상관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3(8), 1149-1160.
- 유경숙(1984), 노년층 여성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재은(1993), 20대 여성의 실제체형과 이상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재은·남윤자(1999), 20대 여성의 신체만족도 및 이상형에 관한 연구 -1992년도와 1997년도의 비교-, 한국의류학회지, 23(1), 159-169.
- 조사연구부(2001), 실버문화마케팅의 개발, 적용과 혁신IV, 마케팅 12월호.
- 함옥상(1985), 노년층 여성의 의복구성을 위한 체형 연구, 계명대학교 과학논집, 11.
- 현두일(1981), 노인의 부양, 국회보 179.
- 홍병숙(1996), 노년기 여성의 신체만족도와 의복관여도에 따른 점포선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4), 245-256.
- Callis, C.(1982), Appearance Program with Female Chronic Psychiatric Hospital Patients: A Comparison of Six-week and Nine-week Treatment Intervention, *Journal of Rehabilitation*, 48(4), 34-39.